



기초연구 투입 처음 7% 돌파

강국 기반 다지는 국가 중기



과학기술부 부장 음화준이 매체의 취재를 받고 있다.

/ 신화넷

올해 전국 인대 정협 회의 '부장통로'에서 과학기술부 부장 음화준은 핵심 수치들을 발표했다. 2025년 우리 나라 기초연구 투자액은 2,800억 원에 달해 전사회 연구개발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7%를 넘어섰다.

정부사업보고는 원천 혁신과 핵심기술 돌파를 강화하고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혁신의 '총스위치'로 불리는 기초연구는 과연 무엇 때

문에 중요할까? 그것은 도대체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까?

* 우주 장기 체류를 목표로 우주비행사센터가 외계 생존기지 연구시설 신장을 주도하고 있다.

* 국제 자오권(子午圈) 대과학계획을 서둘러 우주비행 활동에 더 정확한 우주 기상예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 '중국천안'이 수십개의 40미터 직경 안테나로 구성된 핵심진(核心陣)을 건설해 전례없이 예리한 감각으로 우주 관측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것

이다.

이는 전국 인대 정협 회의 기간 대표와 위원들이 가져온 국가 중기 관련 최신 동향으로 기초연구가 또다시 논의의 초점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매차례 중대한 과학기술혁명은 당시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기초연구에서 비롯되었다.

19세기에 맥스웰(麦克斯韦) 방정식은 전자기학에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고 결국 무선전신과 현대 통신을 탄생시켰다. 20세기에 발견된 유전자

이중 라선 구조는 유전자 편집과 정밀 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고속 발전을 뒷받침하는 딥러닝 알고리즘(深度学习算法)의 수학적 원리도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신경망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에서 비롯됐다. 바로 이렇게 한때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기초연구들이 오늘날 세계 과학기술 발전의 가장 튼튼하고 깊은 뿌리가 되고 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과학기술혁신의 '총스위치'인 기초연구의 발전 방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기초연구는 과거 연구자 개인의 자유로운 탐구와 흥미에 의존하던 순수 학문적 연구에서 이제는 국가적 목표를 지향하면서도 자유 탐구를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5.5' 계획 기간 우리 나라는 량자정보, 뇌과학, 생명건강, 항공우주, 심해, 첨단 소재 등 최신 분야에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국가 전략적 수요와 목표에 맞춰 과학연구를 조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목소리 있는' 기술 패권과 관련된 난제를 해결하고 신질생산력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구축한 국가급 중대 과학기술 기초시설은 77개에 이르며 건설중이거나 이미 가동중인 대형 과학연구 장치는 60개를 넘어섰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

대표 의안 226건 접수



3월 10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 비서처 사업일군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 신화넷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 주석단이 이 정한 대표 의안 제출 마감 시간에 따라 3월 8일 12시까지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 비서처는 대표 의안 총 226건을 접수했다. 이 밖에 대회 비서처는 현재까지 대표 건의 7,000여건을 받았다.

대회 비서처 의안조 조장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업무위원

회 주임인 곽진화는 이번 대회에 제출한 의안 가운데 대표단이 제출한 의안은 28건이고 대표들이 공동 명의로 제출한 의안은 모두 198건이라고 소개했다. 이 의안들은 대부분 법안에 관한 것으로 립법 관련 분야가 223건, 감독 관련 분야가 3건이다.

/ 인민넷-조문판

전국정협 14기 4차 회의 립안 5,005건

3월 11일 오전 폐막된 전국정협 14기 4차 회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 20시까지 전국정협은 총 5,865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제안사업조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결과 5,005건이 립안되고 451건이 병합되었으며 409건은 의견과 건의로 전환되었다.

립안된 제안 가운데 위원 제안이

4,502건으로 89.9%를 차지하고 집단 제안이 503건으로 10.1%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경제건설 방안 제안이 2,103건으로 42.0%, 정치건설 방안 제안이 453건으로 9.1%, 문화건설 방안 제안이 528건으로 10.6%, 사회건설 방안 제안이 1,334건으로 26.6%, 생태문명건설 방안 제안이 587건으로 11.7%를 차지했다.

/ 북경청년보

최해양위원, '위원통로'에서 민족단결의 생생한 현장감 전해



11일, 전국정협 위원 최해양이 매체의 취재를 받고 있다.

/ 귀주일보

3월 11일 오전, 전국정협 14기 4차 회의 세번째 '위원통로'가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국민주동맹중앙 위원이며 귀주민족대학 부교장인 최해양이 기자들의 취재를 받았다.

기자: 최근 몇년 동안 상호보완형 사회구역 건설이 민족단결을 촉진하는 중요한 경로로 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구역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가?

기자의 질문에 최해양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조선족으로서 다민족이 모여사는 길림성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고 운남성과 귀주성에서 공부하고 근무하면서 동북에서 서남지역에 이르는 상호보완형 사회구역의 발전을 목격했다."

최해양은 상호보완형 사회구역에서 여러 민족 주민들은 함께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히 노력하며 함께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민족단결식당에서 함께 가정사를 이야기

하고 민족수공예 작업장에서 손재주를 살려 수입을 올린다. 사회구역은 여러 민족 주민들의 취업, 교육 및 발전 기회를 련결시켜주는 기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깊이있는 상호 교류는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결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발전의 활력을 더욱 북돋우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촌슈퍼리그', '촌BA' 등 귀주성의 다민족 융합 문화 매력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바 작년에만 무려 8억명의 관광객이 귀주성을 찾았다. 이러한 문화적 매력이 바로 민족지역 고품질 발전의 원동력이다. 상호보완형 사회구역 건설은 사람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 해주었고 '향촌의 정취'(乡韵)를 '향촌에 대한 이해(乡知)'로 승화시켰다. 그 결과 민족단결은 여러 사회구역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뿌리내리고 싹트고 무성하게 자라나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의 가장 생동감 넘치는 증거로 되고 있다.

/ 인민넷-조문판

▶ 1면에서 인민대표는 인민의 리익과 의지를 충실하게 대표하고 법에 따라 직능을 리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대중들과 밀접히 련계하고 본 직 일터에서 공을 세우고 기여를 해야 한다.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모두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사업을 추동하는 것을 견지하고 '네가지 의식'을 가일층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가일층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한마음한뜻으로 예의진취하고 무실력행하며 인민을 위해 치적을 내고 실천으로 치적을 내도록 노력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열어가야 한다.

오후 3시 40분, 조락제가 중화인민공화국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차 회의 폐막을 선포했다. 대회는 웅장한 국가소리 속에서 막을 내렸다.

주석대에는 또 왕의, 윤력, 석태봉, 류국중, 리간결, 리서뢰, 하립봉, 장국청, 진문청, 진길녕, 진민이, 원가군, 황공명, 류금국, 왕소홍, 장승민, 오정룡, 심이금, 장군, 응응, 호춘화, 심약약, 왕용, 주강, 하후화, 량진영, 바터얼, 소취, 소홍, 고운룡, 목홍, 함취, 왕동봉, 강신치, 장자군, 하보상, 왕광겸, 진박용, 주영신, 양진 등이 자리를 했다.

중앙과 국가 기관 관련 부문, 해방군 관련 단위와 무장경찰부대, 각 인민단체 관련 책임자들이 대회에 련석하거나 대회를 방청했다.

중국 주재 외국사절들이 대회를 방청했다.



河南舞阳 周松晓作